

지 구 마 을

● 제 27 호 ●



2021.11.23. 순천만 - 20학번 심석민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DAEGU UNIVERSITY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대 구 대 학 교 사 범 대 학

교 육 목 적

사랑·빛·자유의 건학정신 아래 따뜻한 가슴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교육 이론 및 실천에 대한 이해와 전공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함으로써, 만인의 복지와 국가·사회적 요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투철한 사명감과 건전한 인격을 갖춘 유능한 교사를 양성한다.

교 육 목 표

참스승 교육

- 사도교육의 실천
- 교육현장의 이해
- 전문교육의 심화

열린교육

- 교육의 실천화
- 교육의 개방화
- 특수교육의 활성화

지 리 교 육 과 교 육 목 표

-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유능한 지리교사를 양성
- 세계화와 전문화 시대를 이끌어갈 지리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

목차

제 1장 . 지리교육과 이모저모	3
지구마을 27호를 펴내며	4
2021년을 보내며	5
2022년, 당신의 길을 개척하라!	7
지리교육과 교수님들을 소개합니다	9
집행부 소개	10
2021년도 편집부 소개	12
제 2장 . 지리교육과를 소개합니다!	13
21학번 새내기들을 소개합니다	14
19학번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21
20학번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25
제 3장 . 편집부가 전하는 학교생활	30
지리교육과 사랑의 우체통	31
이것이 대구대다! - 희망편 -	35
제 4장 . 우리들의 발자국 - 답사기	39
2021 답사 사진 우수작	40
2021 남부지역 답사 일지	42
대구 답사 보고서	45
제 5장 . 최병두 교수님 기고글	47
인류세란 무엇인가	48
편집후기	56

제 1장 . 지리교육과 이모저모

지구마을 27호를 펴내며 – 편집부장 남연우

2021년을 보내며 – 21년 학회장 강민구

2022년, 당신의 길을 개척하라! – 22년 학회장 정예지

지리교육과 교수님들을 소개합니다

2022학년도 집행부 소개

2021년도 편집부 소개



지구마을 27호를 펴내며

편집부장 19학번 남연우

안녕하십니까! 이번 지구마을 27호에 편집부장을 맡게 된 19학번 남 연우입니다. 저의 글이 이 책을 읽어주시는 분들을 맞이하게 될 첫 글이라 생각을 하니 무척이나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지난 2021년 봄, 없어졌던 지구마을이 돌아왔으면 했던 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 편집부를 구성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 수많은 분들의 손길을 거친 후 마침내 한 권의 책이 완성된 것을 보니 완성본을 보는 뿌듯함과 부족한 점들에 대한 아쉬움이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학우들 간의 소통이 이전과 비교하여 많이 줄어들었기에 지구마을을 통해 지리교육과의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입생분들이 우리 과, 나아가 대구대학교에서 생활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편집부원들과 함께 크고 작은 우리 과의 이벤트들을 직접 참여하고, 조사하며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고, 배우게 되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굴러갔던 일상들이 모여 지구마을의 소중한 부분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마을을 읽어 나가실 여러분들도 분명 글 속에 담긴 당시의 경험들을 추억하고 상상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27호 지구마을을 읽고 난 후 지나간 대학생활을 추억할 수 있기를, 다가올 대학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27호 지구마을을 완성하는 것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교수님, 우리 편집부 부원, 동기, 선·후배분들 그리고 기획부터 완성까지 끊임없는 지원해 주신 전임 편집부장 문홍엽 선배님, 마지막으로 좋은 글을 지구마을에 남겨주신 최병두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을 보내며

21년도 학생회장 17학번 강민구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도담도담 지리교육과 학생회장 17학번 강민구입니다. 학우분들께 지구마을을 통해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매우 뜻깊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얀 소의 해였던 2021년 신축년이 지나가고, 이제는 검은 호랑이의 해인 2022년이 왔습니다. 2017년 2월에 저의 고향인 순천을 떠나 경산에 와서 OT를 하고 입학식을 했던 신입생의 모습이었던 제가 었그제 같은데, 시간이 흘러 학생회장을 역임하고 이제는 임용시험을 앞두고 있는 4학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수님들과 학생회, 선배님들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만 따라 갔었는데, 지난해 제가 직접 학우들을 이끌어 주고 학과의 학생들을 대표하는 입장이 되어보니 사뭇 교수님 그리고, 선배님들의 노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제 개인에게도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대표로서 활동하면서 리더십을 배울 수 있었고, 학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올바르게 소통하는 방법, 봉사정신 등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배움을 바탕으로 제가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회장을 하며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봉사정신'이었습니다. 학우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학생회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선배와 후배, 동기 사이 관계없이 불편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고 재학생 모두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학생회장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제 이러한 생각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학과행사도 만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고민했으나 코로나와 다른 현실들에 부딪혀

더 실행하지 못했던 점에서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회장이자 한 명의 학생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던 저, 그리고 지리교육과 학우들의 학교생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교수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업이 끝난 후나 용무를 보고 계실 때에도 학교생활이나 전공 관련 질문을 드리면 언제나 친절하게 제게 답해주시던 임석회 교수님, 항상 인자하시고 어려운 자연지리 내용을 즐겁게 가르쳐 주시는 손명원 교수님, 학과장으로서 학과를 위해 힘쓰시고 학우들을 위한 의견들을 많이 제안해주신 오정준 교수님, 항상 저와 학우들을 다정다감하게 대해주시고 웃으며 저희를 반겨주시는 이영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회장 역할을 하며 부족했던 저를 이해해주시고 학과의 발전을 위해 저에게 조언을 아껴주시지 않은 지리교육과 학우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무를 수행하며 잘 모르겠는 부분을 항상 여쭙봤던 전임 학생회장 김준영 선배를 비롯한 전임 집행부 여러분들, 올해 저와 함께 일했던 학년 과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 부족한 학생회장인 저를 도우며 많이 고생한 제 37대 도담도담 학생회 학우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부학생회장을 맡아준 현빈이, 학생회장에 출마한 동기를 위해 어려운 자리인 총무부장을 해준 경현이 그리고 현모, 나연이, 지수, 승우, 예지, 하영이 모두에게 고생했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짝지선배를 이어 학생회장을 하는 예지와 지음 학생회에게 응원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이제 학생회장 자리를 내려놓고 제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생 활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지리교육과 학우여러분들도 2022년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꿈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하며, 긴 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당신의 길을 개척하라!

22년도 학생회장 20학번 정예지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지리교육과 제 37대 학생회장 20학번 정예지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저를 믿고 뽑아주신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신 만큼 학생회장이라는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많은 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교에 입학한 것이 었그제 같은데, 제가 학생회장이라는 직책을 역임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를 위해 힘써주시고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과 선배님들 덕분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회장이라는 자리에 선만큼 이를 본받아 많은 학우 분들이 더 나은 학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 37대 지음 학생회는 지음지교(知音之交)라는 사자성어에서 따온 말로, 이는 나의 소리를 알아주는 친구, 자신을 가장 잘 알아주는 벗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음 학생회는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소통하는, 말 그대로 지음지교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학생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학생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회장이 되었다한들 이 자리는 저만을 위해 주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학우 여러분의 바람으로 이 자리가 제게 주어진 만큼 저는 학우분들에 의해, 학우분들을 위해 행동하는 학생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선택해주신 한 표 한 표가 헛되지 않도록 최적의 길에서 최선을 위해 헌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전년도 강민구 학생회장님과 지난 한 해 동안 힘써주신 36대 학생회 임원 분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편집부 임원 분들, 항상 저희를 위해 힘써주시는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올 한 해 저와 함께할 지음 학생회 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잘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22학번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드리고 환영한다는 말씀을 전하며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리교육과 교수님들을 소개합니다

▶ 지리교육과 교수진 소개

	최종학력 :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지형학 전공) 담당과목 : 자연지리학, 기후학, 자연지리조사법, 토양 및 생물지리, 자연지리 세미나 관심분야 : 자연지리 전공(지형학) 습지 • 하천 생태
손명원 교수님	경력 : 대한 지리학회 이사, 한국지형학회 이사
	최종학력 :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인문지리학 전공) 담당과목 : 경제지리, 한국지리, 인구지리, 자원지리, 인문 지리 세미나, 인문지리학, 지역개발론 관심분야 : 도시지리학 전공 경력 : 대한지리학회 편집위원장,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
임석회 교수님	
	최종학력 : 서울대학교 교육학박사 (지리교육 전공) 담당과목 : 지리학 입문, 문화지리, 관광지리, 지리교육론, 지리교재 연구 및 지도법 관심분야 : 관광지리, 지리교육 경력 :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편집부장, 대한 지리학회 홍보 이사
오정준 교수님	
	최종학력 : (영) UNIV. OF BRISTOL 철학박사 (사회정책학 전공) 담당과목 : 사회지리, 도시지리, 세계지리, 지도학 관심분야 : 인문지리 전공 / 사회지리, 도시재생 경력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이영아 교수님	

2022학년도 집행부 소개

부 학생회장 – 20학번 이유민

안녕하세요~ 2022 지음 학생회의 귀염둥이와 부학생회장을 맡은 이유민이라고 합니다! 2022년 동안 학회장을 도와 열심히 봉사하고 학우분들이 학과 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새내기 여러분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총무부장 – 20학번 이하영

안녕하세요! 이번 2022학년 총무부장을 맡게 된 20학번 이하영입니다. 맡은 자리가 중요한 만큼 책임을 가지고 실수 없이 정확하고 깨끗하게 학회비를 잘 관리하겠습니다. 올 한해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총무차장 – 21학번 이태희

안녕하세요 :) 총무차장 21학번 이태희입니다. 올 한해 잘 부탁드립니다. 지교 파이팅~~

홍보부장 – 20학번 진승우

안녕하세요. 이번 지리교육과 학생회 홍보부장을 맡은 20학번 진승우입니다. 즐거운 학교생활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홍보차장 – 21학번 김수진

안녕하세요. 지리교육과 홍보부 차장 21학번 김수진입니다. 1년 동안 대내외로 지리교육과를 알리기 위해 힘쓸 것이며, 학우분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열심히 지리교육과를 위해 일하는 홍보부 차장이 되겠습니다.

교육임용부장 - 18학번 최호근

안녕하세요! 지음지교 학생회 교육임용부장을 맡은 18학번 최호근이라고 합니다. 지음지교로 4행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리교육과에 오신 여러분

음양오행설을 믿으시나요?

지리교육과에 온 만큼 열심히 해서 좋은

교사가 되어보아요...!!

(십자말풀이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임용차장 - 21학번 정채린

안녕하세요! 교육임용차장을 맡은 21학번 정채린입니다. 2022년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즐거운 과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부장 - 20학번 정성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지음 학생회 문화체육부장을 맡게 된 20학번 정성윤입니다. 저희 문화체육부에서는 학생 체육활동과 각종 과 행사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체육대회와 같은 각종 행사를 과 학우분들과 함께 하지 못해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올해는 학우분들과 각종 재미있는 행사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 없이 물어봐 주세요! 1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차장 - 21학번 김교진

안녕하세요! 문화체육차장을 맡은 김교진입니다. 앞으로 맡은 역할 최선을 다하여 재미난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021학년도 편집부



편집부장
남연우



편집차장
최지수



20
이유민



20
진승우



21
권완우



21
김수진



21
이태희

제 2장 . 지리교육과를 소개합니다!

21학번 새내기들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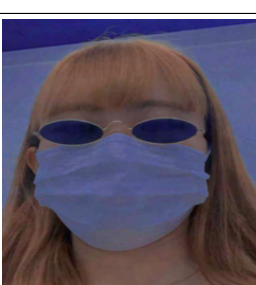
19학번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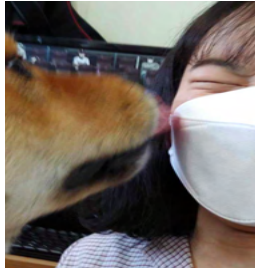
20학번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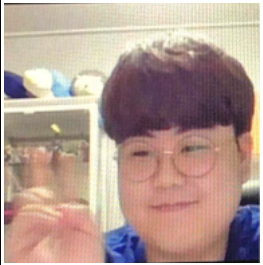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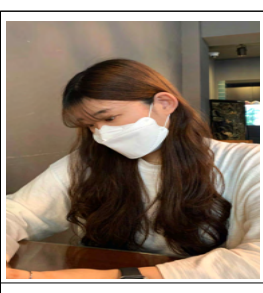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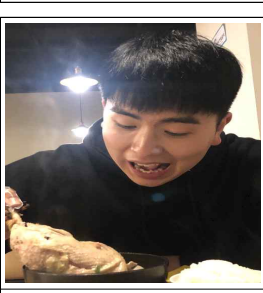


21학번 새내기들을 소개합니다!

	시흥 • 정왕고등학교
강 은주	자칭 무한도전, 대탈출 찐팬. 요즘에 티비만 틀면 무한도전이 나와서 하루 종일 티비만 보다가 방학을 다 보냈다. 게으른 ISTJ라 계획은 번지르르하지만 지키는 건 손에 꼽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한다.
	영양 • 영양고등학교
권 완우	대한민국 경북 BYC 중 Y 출신. 인구 16,000명 도시. 성격은 ESTJ 그 자체. 과제가 쌓이는 걸 가만히 못 본다. 하지만 놀자고 하면 매우 좋아한다. 배고프면 예민해진다. 노래방 가자고 하면 신나서 따라간다. 축구하자고 하면 신나서 따라간다. 밥 사주면 더 신난다.
	구미 • 경구고등학교
권 혁진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구미시에서 온 권혁진입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미 • 도개고등학교
김 교진	대 : 대구대 지리교육과 21학번 김교진입니다. 동 : 동기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여 : 여러 가지의 추억들을 쌓아 저만의 추억의 지 : 지도를 완성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자 도 : 도전 목표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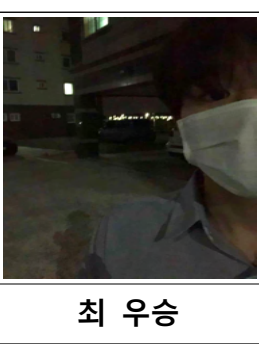
	군산 • 군산여자고등학교 군산에서 민율이(김성주 둘째 아들), 잼잼이 등으로 불려 왔으며, 항상 아이를 닮았다고 들어 내가 아이 아니냐는 어이없는 기적의 논리를 성립시킨 전적도 있다. MBTI는 ESFP로 나름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가끔 친구들은 ENFP 같다고도 한다.
	대구 • 영진고등학교 안녕하십니까? 21학번 김병주라고 합니다. 02년생이고 대구에 살고 있어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제 MBTI는 ENTP로 남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활발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선배님들과 친하게 지내며 행복한 대학생활 보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충주 •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대한민국 중심 충주 사람. 21학번 과대이자 동기들의 동네북. 그렇게 얻은 별명=딩초, 잼민이로 놀림당해서 면역 생성 완료 ESTJ지만 성격은 극 F, 많이 모자란 댕청미를 갖추고 있는 인간적인 과대.. 김수진과 놀고 싶을 때 그녀에게 "쫄?" 한마디면 약속 성사
	김천 • 한일여자고등학교 ESFP인지 ENFP인지 매번 다르게 나와 아직도 정확히 모르지만 자유분방한 성격임은 확실하다. 낮을 많이 가리긴 하나 어색한 분위기를 참지 못해 대부분 먼저 말을 걸곤 한다. 집순이 성향이 강한 편 ... 그러나 막상 놀러 나가면 제일 좋아하는 모순적인 특징이 있다.
	울산 • 호계고등학교 일렉기타, 고양이, 콘솔 게임을 좋아하고 집에서 취미를 즐긴 후 이야기를 밖에서 하는 걸 즐기는 가장 내향적 외향인 ENTP이다. 모든 일에 관심이 많아서 사람들과 공통분모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스스로 생각하는 장점이다. 최근 다이어트에 실패하여 속상해하고 있다.

	당진 • 송악고등학교 저는 지리교육과 불주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주먹에 한 대 맞으면 지리기 때문에 우지리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주먹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할 때도 주먹만 냅니다. 지리와 친해지는 팁! 마이쥬 대신 샤이니 싸인 앨범을 건네며 말을 건다.
김 우진	
	대구 • 호산고등학교 안녕 후배님들~ 난 21학번 김의찬이야. 대학생활 기대될 텐데 고생한 만큼 놀았으면 좋겠어. 나도 놀았거든. 또한 21학번 선배 보면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도 선배들 무서웠는데 친해지면 다들 착해~ 암튼 지리교육과에 온 것을 환영하고 대학생활 잘해~
김 의찬	
	포항 • 동지고등학교 안녕하십니까? 대 포항에서 온 지리교육과 21학번 김재범입니다. 사람 사귀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를 선택해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김 재범	
	대구 • 계성고등학교 어제 증사 찍은 김에 지구마을에도 이사진으로 제출(평소에 사진 안 찍음) 운동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는 ISFP. 별명은 지교 메시. 실력은 딱히... 4년째 다음 시험부터 열심히 공부할 예정. 왕복 3시간 걸리는 통학을 선택한 바보..
김 주영	
	홍성 • 홍성여자고등학교 아무도 믿지 않는 INFJ 성격의 소유자. 내향적인 성격에 걸맞게 지교 대면 수업 프로 불참러를 담당하고 있다. 그녀의 얼굴을 수업 시간에는 볼 수 없지만 같은 날 저녁 술자리에서는 만나기 쉽다는 루머(?)가 은은하게 돌고 있다. 한마디로 '셀프 학점 폭격기'라는 뜻이다.
김 태희	

	하남 • 미사고등학교 철학을 사랑하는 지교인이다. 전공 공부보다 철학 관련 교양을 더 중요시하는 인물이며 지교 동기들 사이에서 그의 철학 사랑은 궁금증으로 남아있지만, 박성현은 항상 묵묵부답이다. 그의 가방에는 항상 지리책 사이 철학책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청송 • 진보고등학교 16년 차 짱구 덕후. 취미는 새로운 음악 찾기이다. 소규모 학교 출신이어서 그런지 아직도 (비교적) 많은 학생수에 적응을 못 하고 있는 중이다. 집순이 기질이 강해 매일 학교-기숙사 루트를 반복했었지만 다음 학기부터는 활동적인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고 있다.
	대전 • 충남여자고등학교 MBTI는 INFP 지만 검사할 때마다 E와 I가 번갈아가며 나온다. 내 생각엔 E와 I가 반반인 것 같다. 집에 있을 땐 항상 누워있으며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굉장히 좋아한다.
	포항 • 포항고등학교 지교 21학번 최강 늑은이. 실제 나이는 22세이지만,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35세의 면모를 보여줌. 그는 n 년째 (입으로) 다이어트 중, 다이어트를 너무 열정적으로 한 탓에 식스팩이 하나로 합쳐져 원팩이 되었다는 후문이 있다. 그가 몸짱(?)인 탓에 모두 '프린스 송'이라고 부름.
	대구 • 강북고등학교 1학기 동안 프로 통학러로 살다가 영겁의 통학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기숙사로 입사해버린 신입생 ESFP로써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다분히 가지고 있지만 내면에 존재하는 부끄러움이 심해서 항상 싸우는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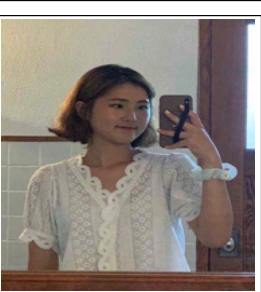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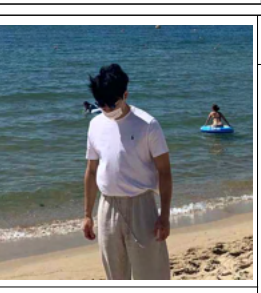
	세종 • 세종고등학교 세종에서 온 유종식이라고 합니다! 축구, 야구 등 모든 스포츠 보는 것 하는 것 가리지 않고 좋아합니다! 게임도 좋아합니다. 제 MBTI는 ENFJ입니다! 기숙사생이고 경상도에 살아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동기, 선배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유 종식	고창 • 고창북고등학교 지교의 생태계 교란종. 1살 많아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막상 친해지면 엄청 편할 수도? 전형적인 ENFJ, BUT 한번 폭발하면 엘로스톤 칼데라(?) 못지 않으니 주의!! 정이 넘치다 못해 흐르고 퍼주는 거 좋아하는 호ㄱ.... 아니 전 라도 피플~
	고창 • 고창북고등학교
유 찬민	대구 • 협성고등학교 지리교육과 21학번 1학기 최초 12학점 수강러이다. 시간표를 보는 학우마다 경악을 금치 못하며 대학생활을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는 것의 표본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뜨거운 대구 사나이답게 열정은 무슨.. 정말 인생을 시간에 맡겨 놓고 흘러가는 대로 산다.
	대구 • 협성고등학교
윤 석한	오산 • 세교고등학교 시그니처 짜파게티 머리를 달고 살았던 소심한 관중이다. 하지만 지금은 염색으로 라면이 된 상태. 관중 of 관중 ESFP지만 아싸다. 빵뎡이를 흔든 적은 없지만 카디비라는 별칭이 달려 있다. 먹을 것을 주면 막 좋아한다. 사람을 또 막 좋아한다. 주특기는 개소리.
	오산 • 세교고등학교
윤 채린	구미 • 석적 고등학교 달고나 커피를 좋아하는 대학생이다. 최근에는 무설탕 달고나 커피를 만들고 있다. 기숙사에서 열심히 커피를 만들었으나 이마트 24가 생긴 뒤로 편의점 달고나 커피가 수제보다 더 맛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반기 목표는 열심히 지리 관련 도서를 읽어 지식을 쌓는 것이다.
	구미 • 석적 고등학교
이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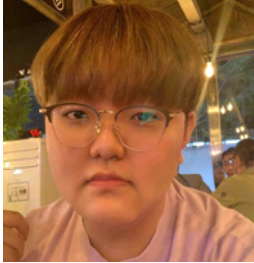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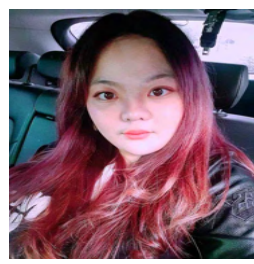
	동해 • 북평여자고등학교 여행과 사진 찍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평범한 지리인이다. 고향은 강원도 동해시로 자칫 외진 지역 출신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동해시는 생각보다 웬만큼 있을 건 다 있는 지역이다. mbti는 enfp로 처음엔 다소 낯을 가릴 수 있으나 친해지면 말이 많아지는 타입이다.
이 채은	구미 • 오상고등학교 슈슈슈슈 슈슈슈슈... 지교 웃음 폭탄.... 슈슈슈 슈슈슈... 편해 지고 싶으면 나한테... 슈슈슈 슈슈슈... 남은 학기도 재밌게 지 내봐요... 슈슈슈 슈슈슈슈 ...잘 부탁드립니다.... 슈슈슈 슈슈슈 슈...
이 태희	청주 • 금천고등학교 통학러같은 기숙사생. 밥 먹듯이 본가에 간다. 기차비가 비싸지만 매주 칼같이 집에 돌아가는 강력한 귀소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번 학기 금공강에 성공해서 더 편히 본가에 머물 예정이다. 낮가림이 심하지만 열심히 배워서 지리 과목이랑 친해지는 것이 올해 목표이다.
	구례 • 구례고등학교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리교육과 학우분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싶은 21학번 조은경이라고 합니다. 대학을 통해 만나게 된 처음 뵙는 동기들, 선배들과 함께 새롭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며 잘 적응해 행복하고 즐거운 대학 시절을 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조 은경	여수 • 여수고등학교 '상상하던 새내기'의 표본 그 자체' 대학생 새내기 버프로 매 순간 열정적으로 즐겁게 생활하는 중 매일 밤 호수에 출몰한다고 하니 알아뒀! 친구들의 고민 상담소니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여수 • 여수고등학교 '상상하던 새내기'의 표본 그 자체' 대학생 새내기 버프로 매 순간 열정적으로 즐겁게 생활하는 중 매일 밤 호수에 출몰한다고 하니 알아뒀! 친구들의 고민 상담소니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천 우영	

	영월 • 영월고등학교 저는 지리교육과 절대 안 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술, 게임, 공부, 밥, 누워있기 등 무엇을 하자고 하면 무조건 하며 빼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이 친구 멋있다, 나쁘게 말하면 무지성이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은 뭘 할까요?
최 범기	합천 • 합천고등학교 합천에 사는 최우승입니다. 합천고등학교 나왔고요. 성격은 소심합니다. 지리가 좋아서 지교과에 오게 됐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합천 • 합천고등학교 합천에 사는 최우승입니다. 합천고등학교 나왔고요. 성격은 소심합니다. 지리가 좋아서 지교과에 오게 됐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군산 • 군산 여자 고등학교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군산 토박이. 대학 진학 전까지는 전북을 벗어난 일이 손에 꼽았다. mbti는 infp. 1학기까와 마찬가지로 2학기에도 신애5호 지박령이 될 예정이다. 최근 알바를 해서 돈이 좀 생겼다. 근데 이제 발목과 방학 함께 갈아 넣은...
	군산 • 군산 여자 고등학교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군산 토박이. 대학 진학 전까지는 전북을 벗어난 일이 손에 꼽았다. mbti는 infp. 1학기까와 마찬가지로 2학기에도 신애5호 지박령이 될 예정이다. 최근 알바를 해서 돈이 좀 생겼다. 근데 이제 발목과 방학 함께 갈아 넣은...
한 예은	원주 • 원주고등학교 피곤을 잘 느끼는 스타일이며 평소에 잠이 많은 편. 잠이 필요한 순간에 자지 못하면 굉장히 예민해진다. 저번 학기에는 기숙사에 있던 날보다 본가에 있던 날이 더 많을 정도로 집을 굉장히 좋아한다. ps 교통비 왕복 4만원..
	원주 • 원주고등학교 피곤을 잘 느끼는 스타일이며 평소에 잠이 많은 편. 잠이 필요한 순간에 자지 못하면 굉장히 예민해진다. 저번 학기에는 기숙사에 있던 날보다 본가에 있던 날이 더 많을 정도로 집을 굉장히 좋아한다. ps 교통비 왕복 4만원..
허 진서	

19학번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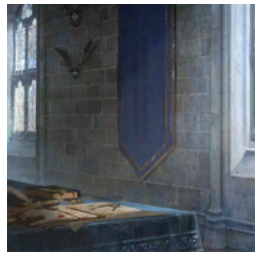
	대구 • 화원고등학교 웅지관 치부찌, 된장 비빔 러버. 나뭇이를 키우는 집사. 투피엠 골수팬, 스포츠 광팬.
	대구 • 다사고등학교 지리 덕후 of 덕후인 그녀는 지리를 좋아하는 단계를 넘어 지리를 사랑하는 ing. 모르는 것을 언제나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예비 교사로서의 자질이 빛나는 사람. 그러나 사람과 술자리를 좋아하는 것에 비해 태연에 버금가는 알쓰(알코올 쓰*기)로 술자리에서 홀연히 사라지곤 한다.
	구미 • 형곡고등학교 공강이 하루라도 없으면 살지 못한다. 공강을 위해 가차 없이 수업을 버리는 프로 공강러. 2학년까지는 도서관 지박령이었지만, 3학년부턴 근로로 인해 과사 지박령이 되어버렸다. ISFP. 'P'라 무작정 새로운 일을 벌여놓고 수습하느라 정신없이 사는 실수를 매 학기 하고 있다.
	대구 • 송헌 여자고등학교 지교의 키티걸(헬로키티 광고) 19학번을 대표하는 통학러로서 늘 피곤함에 지쳐있지만 술자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프로 알콜러. '그녀에게 겨울이 존재할까'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 사계절 춥게 입는 사람. 첫인상은 무섭지만 지내면 지낼 수록 왜 이럴까 싶은 사람. 원숭이 2대장 -지수가 쓴 원숭이 대장2의 tmi-

	포항 • 장성고등학교 “그녀를 보고싶다면 내리리로!” 3년차 프로 자취러이자 지교 대표 캣맘. 그녀의 2번째 별명은 마라탕, 카페, 헬스장 등 안해 본 일이 없는 만능 엔터테이너. 현재 복수전공을 진행하고 있어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술자리를 좋아하고 즐기는 애주가
	대구 • 대구 대원고등학교 수업중 딴짓하기 달인, 신입생 지교 대표 슬픔이에서 어느새 아저씨가 되어버린 19학번. 현재 휴학중 내년에 복학예정. 아싸 프로통학러라 복학 후 학교 어떻게 다녀야 할지 막막함. 지리교육과지만 수능 때 지리과목만 말아먹은 이상한 사람. 낮가림이 심한 편이지만 친해지면 미친 또x이 짓을 보게 됨.
	창원 • 신월고등학교 2대 경산 탈출러. 공장인데 학교에 있는다? 학교 탈출은 못 참지. 본가가 최고야 ♥ 하지만 약속 있다면 학교에 잘 붙어 있음! 심심함을 참지 못함. 동기들 사이에서 프로 침착러 & 보살(?)을 맡고 있음.
	제천 • 단양고등학교 지교 19 대표 평화주의자로서 이 세상 모두와 잘 지내길 바라고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함. 그러나 알코올과는 적대적인 관계로 어느 적정선을 넘는 순간 모두가 감당하기 벅찬 행동을 함. 이럴 땐 그냥 기절시키거나(?) 각사로 데려다주는 것이 가장 좋음. 2022년에 그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 우리 함께 시기를 기다려보도록 하자 -정은이가 쓴 원숭이 대장3의 tmi-
	고양 • 백양고등학교 pt문의주세요. 다짜고짜 가격 물어보지 말고 인사부터 하세요.

	구미 • 선주고등학교
조 현석	술 먹기 위해서 대학 다니는 알코올 중독 예비자로 술 먹자는 부탁은 절대 거절하지 않는다. 지리에 큰 재능은 모르겠으나 여행 다니려고 지리교육과에 온 이상하지만 평범한 학생
	김해 • 김해임호고등학교
지 현동	김해 출신의 지교 무지성 손(명원교수님)빠(돌이)로 자연지리를 좋아한다. 방학 시즌 제주도에 오면 올레길을 걷고 있는 그를 만날 수 있고 학기 중엔 평사에 위치한 김스마트 지박령으로 살고 있다. 배낭여행, 제주도에 관심이 많아 관련된 이야기는 언제나 환영함.
	서울 • 부용고등학교
최 다희	구 노헤일리 → 현 희다 지교 제 1 대 경산 탈출러로 금요일 오후 이후론 그녀를 찾을 수 없으며 갑작스레 서울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 ENFJ로 가끔 이상한 거에 웃음이 터지곤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있으면 금방 다시 돌아온다.
	화천 • 화천고등학교
최 세영	지교의 그릴싸 및 애매함을 담당하고 있는 그녀는 가끔 화천에서 학교까지 운전하며 다니는 자칭 드라이브 매니아. 본인이 아싸라고 주장하지만 '기만하네~' 소리를 듣는 자취방 지박령. 한동안 집밥생선생으로 '자취방에서 이런 음식을..?'이라는 반응을 이끈 홈파티러였음. 주량은 소주 3잔이지만 나름 술자리에서 오래 살아남곤 함.
	울진 • 울진고등학교
최 은영	학교에서 어딘가를 향해 바쁘게 걷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접니다. 역사교육과 복전에 잡아먹혀서 바쁜 게 너무 좋은 사망년(3학년)입니다. 도서관 대출대에서 열심히 근로하고 있으니 놀러오세요 ㅎㅎ

	순천 • 순천매산고등학교
최 정근	안녕하세요 :) 급성 백혈병 투병 중이라 학교에 못 가고 병원에 있지만, 꼭 완치해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네요ㅎㅎㅎ 그때쯤이면 고인물?이 되겠네요ㅋㅋㅋㅋㅋ
	시흥 • 시흥능곡고등학교
최 지수	19학번 카리스마 Boss로 현재 교육 임용 담당을 맡으며 지리 교육과를 책임지고 있음. 첫인상은 매우 강해 보이지만 사실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외강내유의 소유자. 술을 매우 좋아 하며 19학번 최고 주당으로 매 시험이 끝나면 술배들을 신청 할 수 있으며 간혹 술자리에서 "안 취할 거면 술 왜 마셔..?" 라는 말을 하곤 함. 유튜브와 블로그 채널도 운영하는 인싸로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기서가 쓴 원숭이 대장1의 t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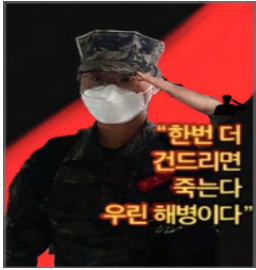
20학번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포항 • 포항제철고등학교
권 능관	컴퓨터 게임하는 것을 좋아하며, 특히 지도를 가지고 컨셉을 잡고 플레이하는 게임들을 좋아한다.
	시흥 • 시흥능곡고등학교
김 선우	운동을 좋아하고 스포츠 관람을 좋아한다. 지루한 것을 싫어하고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한다.
	칠곡 • 순심여자고등학교
김 유빈	기쁠 때 엄청 기쁘고 슬플 때 힙합을 취버리는 감정 기복이 조금 심한 ENFP다.^*^ 전공 공부할 때 인문 지리 계열은 되게 좋아하는데 자연지리는 굉장히 손을 대기가 어렵다. 뻗속까지 문과인지 자연지리 쪽은 뭔가 다가가기 힘든 전공처럼 느껴진다...
	시흥 • 서해고등학교
김 태하	차분하고, 섬세한 성격이다. 최애 음식은 스시다. 평소 야구&해외축구 경기 보는 것을 좋아하고, 새벽에 에어팟 끼고 누워서 혼자 사클 노래 듣는 것이 소확행이다. 나의 최애 아티스트는 토일 & 한요한이다.

	삼척 • 도계고등학교
김 한샘	친해지면 말이 많아지는 성격이다. 보통 일이 없는 경우에는 집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한다. 취미는 잠자기, 게임, 웹툰 보기 등이다.
	구미 • 대영고등학교
송 인화	최강의 포켓몬 트레이너를 꿈꾸는 지리교육과 학생이다. 파트너 포켓몬은 에이스번! 포켓몬 배틀 상시 환영 :)
	예천 • 대창고등학교
심 석민	초면에 낯을 가리는 편이지만 친해지면 말이 많은 친구다. 인생의 목표가 '죽기 전에 안 해본 짓을 해보자'여서 그런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추진력은 좋은 편이다. 취미생활은 노래방에 가는 거라는데 한 번 가면 30곡은 기본으로 부른다고 한다.
	보령 • 대천고등학교
원 주한	티비와 유튜브를 떠도는 k-pop의 망령. 아이유가 본진이나 여돌에는 늘 진심이고 엔시티를 중심으로 남돌도 파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잡덕인 편. 떡볶이가 몸에 흐르며 친해지면 돌아이가 되는 매력덩어리 infp. 앳콩~!☆
	영천 • 영천고등학교
이 상현	긍정적이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홍성 • 서해삼육고등학교
이 시현	성격은 활발한 편이고, 게임을 좋아하는데 그중에 롤을 좋아한다. 그리고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 장르는 액션, 사극을 선호하는 편이다.
	부산 • 연초고등학교
이 유민	이태용, 이마크와 함께 엔시티 부동의 센터 3인 중 한 명으로 춤 실력이 뛰어나다. 특히 춤선이 강점인 편. 현재 부과대를 맡고 있으며 정다정의 믿음직한 부하이자 정신적 지주이기도 하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오정준 교수님.
	천안 • 월봉 고등학교
이 지현	ENFP로 집보단 밖이 좋다. 사람과 돈은 많을수록 좋다^^!! 평소 글쓰기와 사진 찍는 것이 취미이다.
	울산 • 효정고등학교
이 하늘	사소한 것에도 잘 웃고 가능한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한다.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맡은 바를 다 해낸다.
	봉화 • 봉화고등학교
이 하영	정예지 친구입니다.

	보령 • 대천고등학교 약속이 없어 항상 집구석에서 사회와 거리 두기 중입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기만 하면 나갈 수 있으니 연락해 주세요 ^^7
이 해우	여수 • 충무고등학교 2021년 11월에 입대하였기 때문에 2023년 9월 이후에서야 그의 자취를 찾을 수 있다. 대구대학교 중앙동아리 CML에서 피아노 반주로 활동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1%밖에 없다는 INFJ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임 요셉
	부산 • 성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과대입니다. 저 없으면 우리 학년 안 돌아가.... 돌아는 갑니다. 부과대 이유민은 제 오른팔, 이하늘은 왼팔입니다. 그리고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지교의 진짜 정신적 지주이자 지교를 조종하는 흑마법사.
정 다정	김해 • 경원고등학교 웬만한 장난은 다 받아주는 성격이라서 친해지기 쉽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걸 좋아한다.(특히 초밥 좋아함) 운동도 좋아한다.(농구 좋아함) 게임도 좋아한다. (롤) 지리교육과답게 놀러 다니는 것도 좋아한다. 후배님들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밥 사드립니다. 물론 군대가있을 예정. (2년 뒤)
	정 성윤
	포항 • 두호고등학교 20학번 사건사고의 중심에 있는 여자. 이 여자의 사건을 정리하면 사전이 나올 정도임. 현재 2학년임에도 위세나 카리스마라고는 전혀 없다. 20학번의 플랑크톤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 본인은 동의 안 함. 동기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소리는 '귀엽다'라는 말.
정 예지	

	포항 • 포항 동성고등학교
정 용민	1년 만에 사범대에 수많은 적을 만든 사랑에 목숨 거는 사랑에 약한 해병 하지만 절반만 해병이다. 현재 휴학생이지만 과에서 위세를 떨치며 복학을 기다리는 중. 가장 많이 듣는 소리로는 또 누구냐이며 연관 검색어로는 예지가 있다
	구미 • 형곡고등학교
진 승우	지교 육아 난이도 NO.1 아무도 진승우를 막을 수 없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닌다. 너무 천진난만하기에 어디로 튈 줄 모른다.. 하지만 이게 매력일지도..?
	영덕 • 영덕고등학교
최 영민	지교 의외성 NO.1 입이 조금 험해 첫인상이 세보이지만 그냥 롤만 하는 동네 바보다. 현재는 102기갑 여단에서 "대형"운전병으로 군 복무 중이며 지교 Best Driver를 꿈꾸고 있다.

제 3장 . 편집부가 전하는 학교생활

지리교육과 사랑의 우체통

이것이 대구대다! - 희망편 -



지리교육과 사랑의 우체통



코로나 때문에 대면활동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편지를 통해 대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에 생겨서 연재 빛을 볼 수 있는거 같다!

- 21 김의찬

시험 기간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받아 힘이 되었다. 편지를 써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고마웠고

좋은 기억이다

- 21 김수진

사랑의 우체통 행사를 통해
친구와 선우배 사이에 좋은 말을
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선배의 편지를 받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최고의 선배를 만나
1년동안 너무 즐거웠다.

- 21 윤채린

같은 과 학우와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을 편지를 통해서 전할
수 있고 전에 받을 수 있어서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행사 진행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 이아늘

평소에 나누지 못했던 말들을
편지를 통해 주고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 21 박연영

코로나 19 비대면 상황으로 동기, 선배, 후배 얼굴을
못본지 오래 되었지만 과에서 진행한 사랑의 우체통
행사로 편지를 주고 받으며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행사를 기획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19 최다익





이번에 편집부에서 진행한 사랑의 우체통 행사를 통해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귀여운 두두가 그려진 편지지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학교생활, 그리고 과의 학생회장으로서의 생활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행사를 통해 제가 아끼는 후배, 동기에게 편지를 받았을 때 많은 힘이 되었어요. 덕분에 안 학기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편지를 써준 학우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 번 전합니다!

- 17 강민구

사랑의 우체통 행사를 통해 오랜 만에 친구이자 동기한테 편지를 받아서 너무 감동이었고 공부할 때 정말 힘이 되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며 아고 편지를 써준 동기에게 너무 고맙다!

- 17 왕윤정

평소 친구들에게 마음을 전하기 쉽지 않고, 비대면으로 인해 더 어려워졌는데 사랑의 우체통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편지를 받기만 했는데 다음에는 저도 꼭 다른 친구들, 선배, 후배들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19 여은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이전의 시기보다 서로 간의 소통이 결여된 부분에서 사랑의 우체통 프로젝트를 통해 "몸을 멀리 마음은 가까이"의 의미를 온전히 인지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글이라는 것은 평소 말로 전달할 수 없는, 미처 전달하지 못한 진심을 실토해내게 되는 매체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글 또는 편지의 특성을 활용한

사랑의 우체통 프로젝트를 통해 교내의 애정하는 이에게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19 박정은





사랑의 우체통을 통해 평소 직접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좀 더 진솔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은 것처럼 저도
따뜻한 마음을 다른 누구에게도 줄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서로의
진심을 알고 다시 한번 상대방을 생각하게 하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 20 유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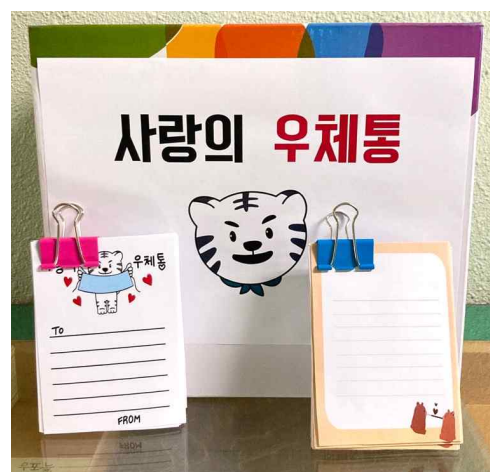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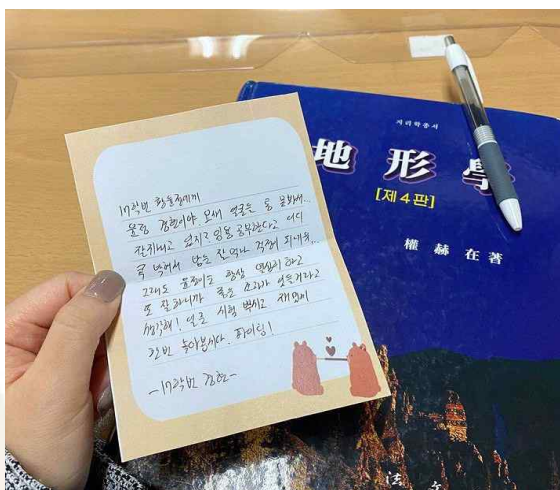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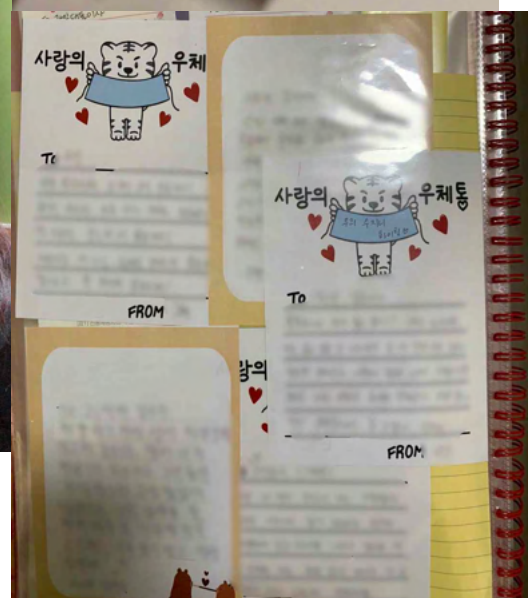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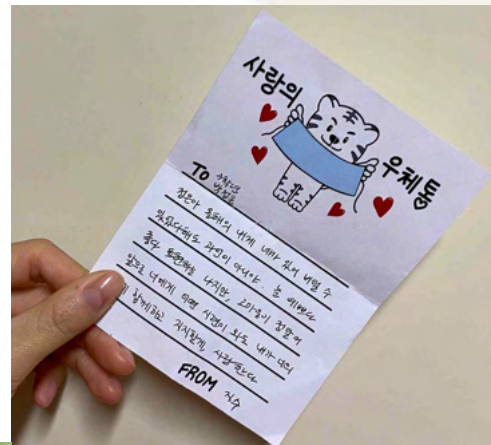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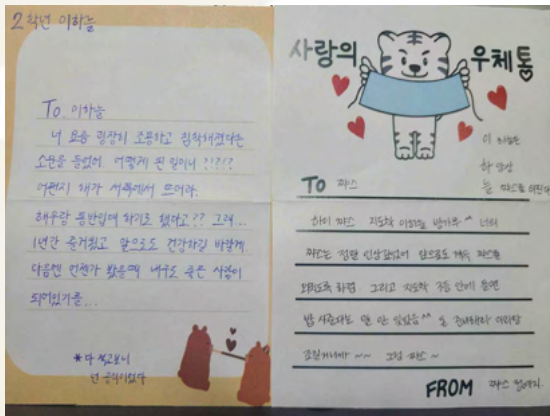
사랑의 우체통 행사를 통해서 평소에 부담스럽고 어색해서 잘 쓰지 못했던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생겨서 너무 좋았다. 또 카톡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고 잊혀질 수 있지만 직접 손으로 안 글자씩 써내려간
편지로 받으니 더욱 의미가 있다고 느껴졌고 오래오래 보면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 20 이해우

살면서 누군가에게 사랑함, 고마움, 미안함 등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전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랑의 우체통이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말들을 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 저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정은 내뱉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중지 않은 욕은 좋은 마음 모두
전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닿지 않습니다. 또 내 맘을 알아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오이려 관계에 독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전하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용기가 여러분께도 자리 잡길 응원하며 참여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19 최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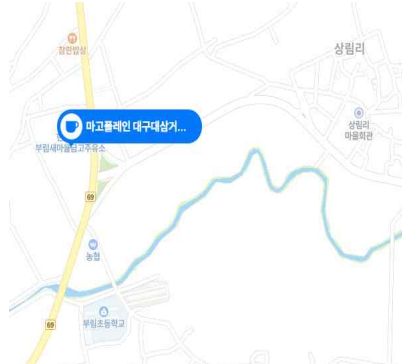
이것이 대구대다! - 희망편 -

여러분 대학에 오시면 동기들과 무엇을 먹을지 고민이시죠?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편집부원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만족스러웠던 식당 여러 곳을 선정한 뒤, 직접 맛집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탐방한 여러 곳의 식당 중 네 가지를 꼽아 추천해 보았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ㅎㅎ 개인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 식당들을 가보지 않는다면 정말 많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식당들을 한 번 살펴보시고 잘 고민해서 친구들과 맛있는 한 끼 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마고플레인>

- **영업시간:** 매일 08:00-23:00 (연중무휴)
- **위치:**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거리 473-12



* 정문에서 아무버스나 골라 잡아서 탄 뒤 '대구대 삼거리' 정류소에 하차.

- **추천 이유:** 대구대하면 마고플레인. 마고플레인하면 대구대 인거 아시죠?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빵 냄새가 어우...^_^

마고플레인에 오면 핑크몰리 앞에서 꼭 사진을 찍어야 해요! 10월-11월이 가장 예쁘게 피니 참고해두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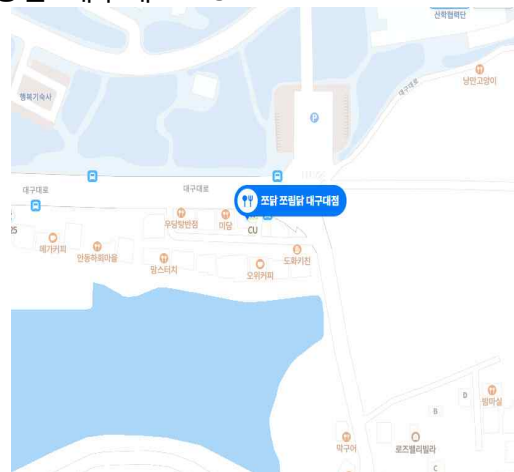
- **추천 메뉴:** 보리보리쌀 라떼, 청귤 에이드, 말차초코라떼, 타르트
- **총평**

맛:☆☆☆☆ 가격:☆☆☆☆ 분위기:☆☆☆☆ 서비스:☆☆☆☆



<쪼닭>

- **영업시간:** 11:00-21:00
- **위치:**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52-7



* 정문 씨유 3층건물

- **추천 이유:** 저희가 추천해드릴 음식점은 쪼닭 입니다. 쪼닭은 세븐일레븐 옆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으며 대구대에서 유명한 핫 플레이스입니다.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메뉴를 추천하자면 마요토피нг은 한번은 드셔보실 만한 토피نگ이라 마요토피نگ에 마요의 느끼한 맛을 후반에 잡아줄 고동을 추천합니다. 뼈와 순살 중에는 순살이 먹기에 편할 것 같아 추천드리고, 토피نگ 추가로는 비엔나 소시지와 치즈 토피نگ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쪼닭은 인스타 스토리에 시킨 음식을 사진찍고 쪼닭을 태그하면 500ml 콜라나, 1.25L 콜라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가시게 된다면 꼭 추천합니다! 분위기도 나뵤 괜찮고 커플들도 자주 간다는 사실! 꼭 추천드립니다!

- **추천메뉴:** 모든 메뉴에 비엔나, 마요네즈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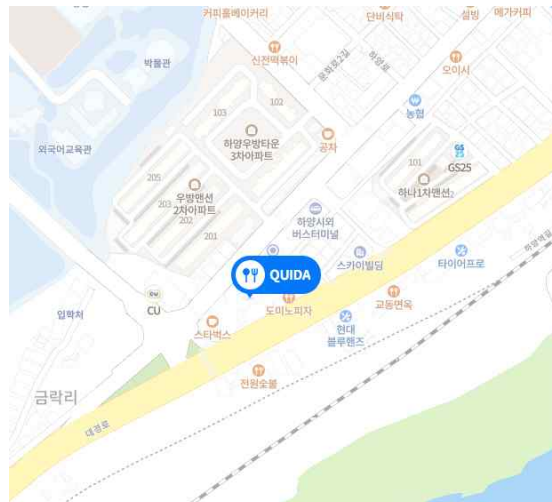
• **총평**

맛:☆☆☆☆ 가격:☆☆☆☆ 분위기:☆☆☆☆ 서비스:☆☆☆☆☆



<퀴다>

- **영업시간:** 매일 11:30-21:00
* 점심시간은 사람이 많이 붐비니 잘 확인해보시고 가세요.
- **위치:**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653 휴가오피스텔1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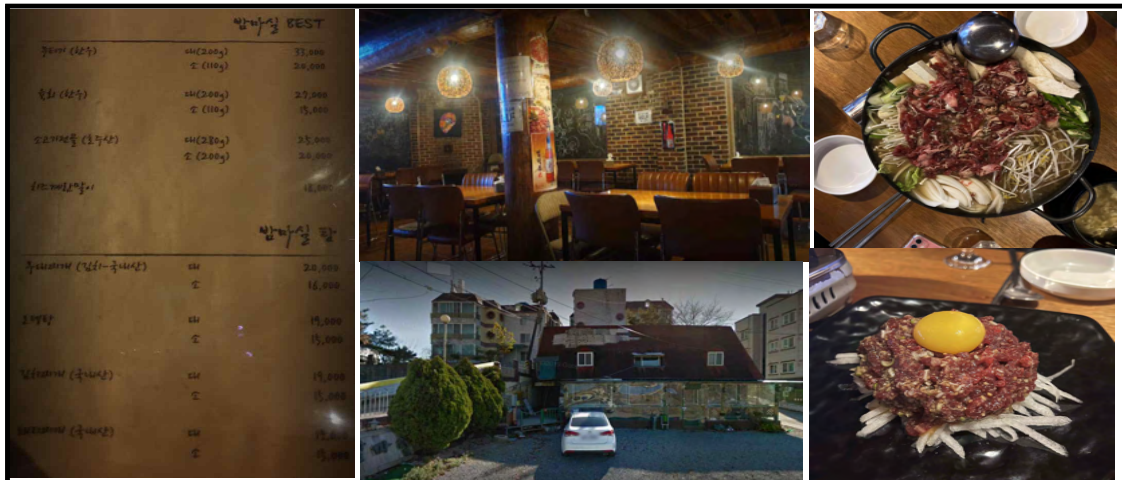
* 하양 방면 버스를 탄 뒤 '하양시외버스터미널'에 내렸다면 스타벅스 방향으로 쪽 걸어가다 보면 식당이 나옴.

• **추천 이유:** 학교 근처에 마땅한 양식당이 잘 없을텐데 미즈가 질린다!, 더 맛있는걸 먹고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하양 '퀴다'를 추천해요. 가격은 9900원~12,500원 대로 형성돼있으며 가격은 좀 나가는 편이지만, 양도 적절하고 여러 가지 메뉴를 시켜서 친구들과 나눠먹기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사진찍기도 좋으니 꼭 가보세요!

• **추천메뉴:** 베이컨 포테이토 피자, 쉬림프 크림 파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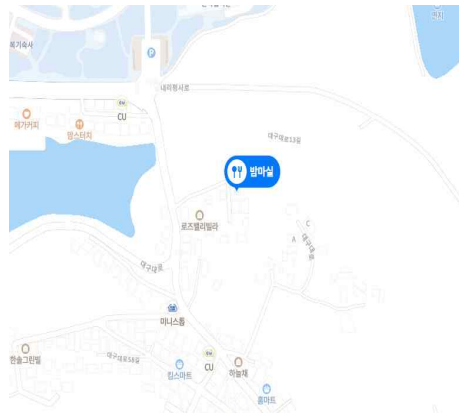
• **총평**

맛: ☆☆☆☆☆ **가격:**☆☆☆ **분위기:**☆☆☆☆ **서비스:**☆☆☆☆☆



<밤마실>

- **영업시간:** 오후 4시 이후 오픈
* 월요일은 재료 준비로 평소보다 늦게 오픈
- **위치:**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13길 12-2



* 평사에 들어서서 처음 보이는 왼쪽 골목으로 쪽 들어가면 됨.

• **추천 이유:** 밤마실의 밖의 분위기는 산장과 같고 시골 동네에 있을법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요. 하지만 식당의 안으로 들어가 보면 깔끔한 식탁과 의자 등 감성있는 가구들로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육회인데 가격이 다소 나가지만 엄청엄청엄청 맛있어요. 아주머니가 고기 품질에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셔요....ㅎㅎ 소고기 전골도 여러 가지의 채소와 버섯, 고기와 당면의 조합... 맛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죠?

아! 여담으로 단골 손님들 한테 간, 천엽을 서비스로 주셔요! 그리고 밤마실에 오면 복숭아 과일 소주, 과일 막걸리는 빼놓을 수 없죠~.~ 솔직히 시원한 슬러시로 만들어져서 취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반주를 걸치고 싶은 사람은 밤마실 적극 추천합니다.....!!!!

• **추천메뉴:** 소고기전골, 육회, 몽티기, 복숭아소주, 망고막걸리

• **총평**

맛:☆☆☆☆☆ 가격:☆☆ 분위기:☆☆☆☆ 서비스:☆☆☆

제 5장 . 우리들의 발자국 - 답사기

2021 답사 사진전 수상작

2021 남부지역 답사 일지 - 20학번 심석민

대구 답사 보고서 - 21학번 김우진



2021 땡사 사진 우수작

- 각 학년 최우수작 -



< 순천만 >

2학년 최우수 - 20학번 심석민



< 대구 삼덕동 >

1학년 최우수 - 21학번 김우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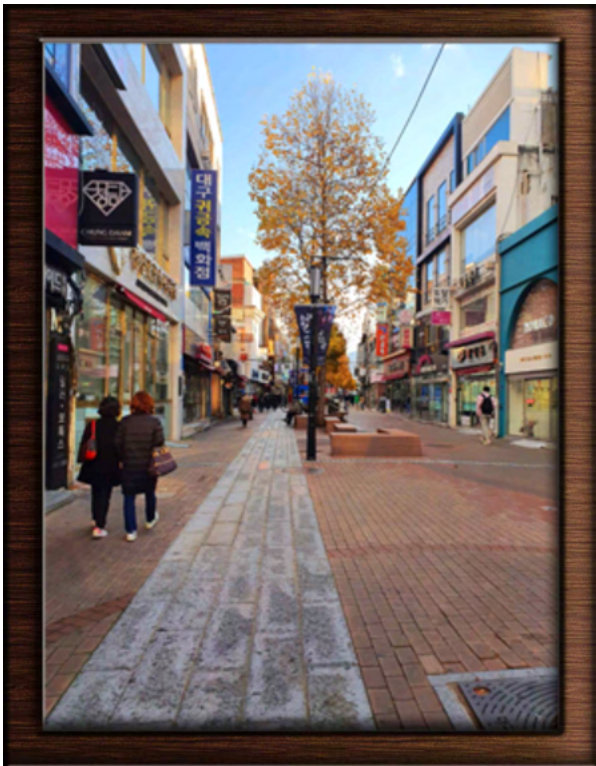
- 각 학년 우수작 -



< 고성 상족암 공룡 발자국 >
2학년 우수 - 20학번 정다정



< 고성 상족암 >
2학년 우수 - 20학번 이유민



< 대구 교동 귀금속 거리 >
1학년 우수 - 21학번 유찬민



< 순천만 >
2학년 우수 - 20학번 원주한

2021 남부지역 답사 일지

- 창녕 우포늪, 사천 선상지, 고성 상족암, 순천만, 거창 가조 분지 -

답사 사진 '2학년 최우수'

20학번 심석민

저희는 지난 2021년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첫째 날(22일)에는 창녕 우포늪, 사천 선상지, 고성 상족암을 그리고 둘째 날(23일)에는 순천만과 거창 가조 분지 일대를 총 1박 2일 일정으로 손명원 교수님의 인솔하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답사 전에 답사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답사 일주일 전 교수님의 주관하에 미리 답사지에 대해 발표하는 것으로 답사지에 대한 정보를 대체해야 했습니다. 답사지에서 교수님께서 설명과 눈으로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발표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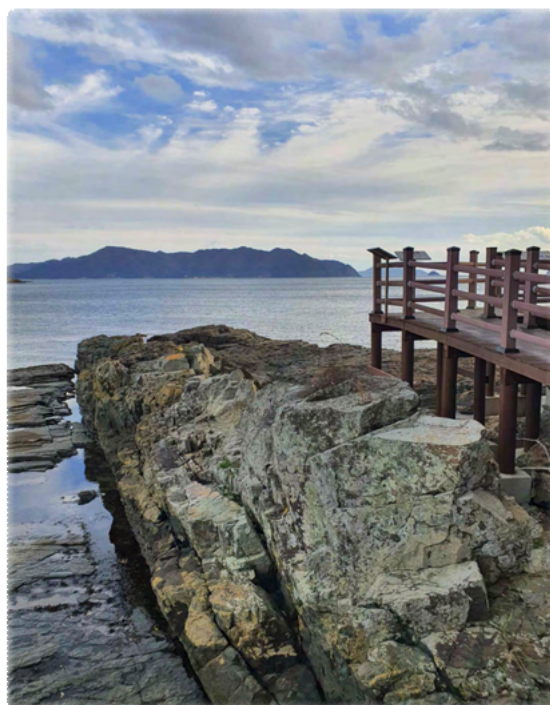
22일 아침에 우리는 답사지로 이동하기 위해 전세버스가 기다리고 있는 대구대학교로 모여 일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답사지는 경상남도 창녕군에 있는 우포늪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우포늪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로 이동하여 교수님의 설명과 함께 우포늪의 형성과정과 한국의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늪이 어떻게 이용됐는지 그리고 우포늪을 예로 들으시며 우리나라 지명이 지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개인적으로 우포늪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늪이 넓어서 놀랐습니다. 우포늪과 함께 주변에 있는 작은 늪도 함께 설명을 듣고 볼 수 있었는데 시간이 주어진다면 더 둘러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촉박하여 다 둘러볼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그 후 점심을 먹고 경상남도 사천시에 있는 사천 선상지에 잠시 들러 교수님의 선상지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첫째 날의 마지막 답사지인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상족암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앞선 우포늪과 선상지는 하천 지형이었다면 상족암은 해안지형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암맥과 건물, 퇴적암, 몽돌해변 그 외에 다양한 해안지형에 대해서 형성과정

과 차이점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설명해 주셔서 자연지리학과 지형학 강의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날 답사지 중에서는 이곳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경상남도 통영시에 있는 숙소에서 묵음으로 첫째 날 일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은 숙소가 위치한 통영에서 전라남도 순천시로 이동하여 순천만을 답사한 후 순천만 앞에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경상남도 거창군에 있는 가조 분지를 들리는 일정이었습니다.



« 사진 1. 고성군 상죽암 »

순천만에 도착한 후에는 교수님께서 순천만에 형성된 갯벌의 형성과정과 순천만의 밀물과 썰물 때의 해수면 차이, 순천만의 식생 등 갯벌에서 볼 수 있는 경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답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 아쉬운 점은 순천만을 전체적으로 둘러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 추후 개인적으로 답사를 더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약간 여담인데 순천만의 전체적인 모습을 촬영하고 싶다면 순천만 입구에서 걸어서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용산 전망대라는 곳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왕복으로 넉넉잡아 2시간은 걸리니 혹시 나중에 학과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순천만에 답사하러 가서 순천만 일대의 사진을 촬영하고 싶은 학우분은 시간이 매우 넉넉할 때만 전망대를 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가 나고 썰물 때 사진을 촬영하면 가장 잘 나옵니다.

이후 점심을 마친 후 경상남도 거창군에 있는 가조 분지 주변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려서 가조 분지를 포함한 내륙에 위치하는 분지들에 대한 형성과정, 어떤 자연경관이 나타나는지 현재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 다양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둘째 날 마지막 답사지의 답사를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COVID19로 인하여 그간 답사를 가지 못하여 답사에 대한 기대와 설렘은 저를 포함한 학우분들과 교수님께서도 남달랐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지리보다는 인문 지리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았습니

다. 하여 한반도 남부지역의 하천 지형과 해안지형 답사가 목적인 이번 답사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처음에서 하였습니다만, 답사지를 둘러보면서 보이는 인문경관에 대해서 새로이 생기는 궁금증에 대해서 학우분들과 교수님들 덕분에 풀어 나아갈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에 학교에서 배웠던 자연지리 영역을 다시금 복습하고 추후 지리 교사가 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사진 2. 순천만 »

대구 답사 보고서

- 대구 광역시 -

답사 사진 '1학년 최우수작'

21학번 김우진

답사하면 무조건 자연지리만 떠올렸었는데, 하지만 이번에 답사를 다녀오면서 답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도시 지역이라 자주 왔다 갔다 했지만 도시내부구조는 눈으로 관찰하기 힘들다는 편견을 갖고 있어 아무 생각 없이 다녔던 지역을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가니 도시 내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대구의 특징은 서울과는 다르게 통행량을 보면 실내 아파트 공급, 교육 서비스가 많아서 역통근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차가 막히고 들어오는 차가 덜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족성을 갖는 교외도심부라는 특징을 가진 것이 이해가 되었고 아직도 대구 안 계획·개발 중인 아파트가 많다는 것을 듣고 서울과 많이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수성구 시지동 신매광장입니다.

자족성을 갖는 교외 도심부로 표준화 된 외곽의 주거단지라는 특징이 잘 나타나있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중앙에 광장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앞으로는 상업가, 뒤로는 아파트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오래 전에 조성된 아파트 단지보다 최근에 조성된 아파트 단지의 스카이라인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진 1. 대구 수성구 신매광장 »

시지동을 들렀다가 범어네거리를 가는 길에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단독주 택지구로 지정되어 아파트가 많지 않은 지역을 지나기도 했고 특히 광명타

운하우스를 지나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단독주택으로 빗장도시라 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범어네거리에서는 법원, 검찰청 등 공공기관이 입지해있고 파생된 업무를 보는 사무실, 금융서비스 등이 많이 들어와 도심 기능 중 행정·금융·업무 등의 생산자서비스 기능이 많이 입지해있었습니다. 높은 사무용 건물이 많아 시지에서와 많이 비교되는 경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시가지는 구시가지와 다르게 도로가 넓고 계획적으로 개발되어 이곳의 업무기능도 이전되면 아파트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삼덕동으로 더 오래전에 개발된 지역입니다. 음성 바깥으로 오래된 단독주거지역이 있던 동네입니다. 이곳에는 전국 최초로 담장을 허문 집이 있고, 벽화를 그린 집들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가꾸고 만든 동네로 특히 적산가옥이 남아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오래된 단독주거지역에 있기에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지으려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예전의 모습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돈을 모아 적산가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적산가옥이 도서관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 사진 2. 대구 삼덕동 »

그 다음에는 달구벌대로를 지나 중앙로(음성 안)으로 갔습니다. 동성로에서 음성의 성곽 경계 찾기, 이전의 중심지 기능을 했던 경상감영공원에도 방문하고 약천거리, 공구골목, 귀금속거리 등의 특화거리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답사를 통해 도시 내부를 구석구석 관찰하고, 직접 머릿속에 그려볼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처음 가는 답사라 더 뜻깊고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제 4장 . 최병두 교수님 기고글

인류세란 무엇인가? - 최병두 교수님



인류세란 무엇인가? 개념적 의의와 한계

최병두 교수님 (대구대 지리교육과, 명예교수)

1. 지구적 생태위기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 인구를 불안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코로나 팬데믹이 백신 접종과 치료제의 개발로 다소 완화되면서 이제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난 해 말 델타 변이와 더불어 등장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은 전 세계를 다시 불확실하고 우울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코로나 백신을 추가 접종할 경우 중증화될 확률과 치명률이 떨어지고, 언젠가는 감기처럼 약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과연 우리는 언제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황폐해진 자연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출현과 이의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이라는 지구적 생태위기는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한 현대 의료기술과 이를 촉진한 초국적 제약자본에 의해 통제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뿐 아니라 신데믹(syndemic)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다른 여러 유형의 지구적 생태위기에 처해 있다(최병두, 2021). 산업혁명 이후 급증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 초래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빙하 소실과 해수면 상승, 홍수와 이상 가뭄, 산불 등은 오늘날 인간의 생활과 생산체계뿐 아니라 지구시스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서식지 파괴와 남획으로 생물종이 급속히 줄어들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75% 이상이 멸종하는 여섯 번째 대멸종을 겪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위기 양상들에 더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은 산더미처럼 쌓이고 해양으로 떠내려가 거대한 섬을 이루면서, 동물의 체내에 누적되어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인간도 역시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인간의 전쟁도구로 개발된 핵무기의 실험과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지만 원자력 발전에 따라 배출된 방사성 물질이 전 지구의 지표층에서 넓게 검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화석'만이 아니라, 인류가 일년에 500억 마리씩 먹고 버린 닭뼈가 지층에 쌓여 현시대의 대표적 화석이 될 것으로 꼽히기도 한다. 대도시의 거대한 건조환경을 구성하는 콘크리트 구조물들도 땅 속에 묻혀서도 썩지 않는 엄청난 양의 건축 폐기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지구적 생태위기와 더불어 지구 상에 인류가 남기고 있는 흔적들은 현시대를 새로운 지질시대로 분류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달리 말해, 오늘날 우리는 인류가 이 지구 상에 등장하여 수백년 전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과학기술 및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류는 다른 어떤 힘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력을 이 지구상에 행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

연환경과 지구시스템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크뤼첸(Crutzen and Stoemer, 2000; Crutzen, 2002)과 이에 공감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시기를 '인류세'라 지칭하고 이에 관한 연구와 관심을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고 있다. 명칭과 시작 시기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있지만, 인류세의 현실성, 즉 인류가 지구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해밀턴, 2018; 최병두, 2021 등 참조).

2. 현상유지인가, 파국과 전환인가?

인류세라고 지칭되는 이 시대의 발전에 관하여 생태근대화론자들을 포함한 일부 낙관주의자들(Asafu-Adjaye et al., 2015)은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승리라고 해석하면서 인류세의 도래를 환영하고자 한다. 이들은 인간이 개발한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지구 환경과 인간 사회를 잘 관리함으로써 현상유지의 관점에서 지구적 생태위기가 극복되고 앞으로도 인류 문명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러한 낙관적 관점에서, 기술 문명에 사로잡혀 있는 현대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의 사회생태적 원인 해소와 전염병의 지구적 확산 배경에 대한 개선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인류세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들 대부분은 회의적 관점에서 인류세를 이해한다. 즉, 위에서 열거된 사례들에 함의된 것처럼 인류세는 기본적으로 지구적 규모로 심화된 생태위기와 이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의 암울한 전망을 보여준다. 즉 인류세는 인류가 지구시스템을 변화시킬 정도로 강력한 지질학적 힘을 가지게 되었지만, 이러한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 지구시스템은 행성적 차원에서 그 한계를 넘어서 안전한 작동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음을 뜻한다. 인간이 나머지 자연에 가하는 압박은 기후와 생물 다양성 등에서 파열점에 이르도록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인류세는 이러한 지구환경의 파괴와 지구시스템의 변화로 인해 인간 사회가 더 이상 이에 적응하거나 도피할 수 없는 위험 상황, 자신의 생존 기반을 스스로 파괴하는 재앙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점에서 인류세 개념은 현상유지적 발전 상황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지구 생태계의 붕괴와 인류 문명의 종말이라는 단절 또는 파국을 상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위기와 이에 대한 위기관리 전략에 따라 통제가능한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인류세에 함의된 지구적 생태위기는 한번 악화되면 단기간에 회복될 수 없는 위기이며,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위험 상황에 빠지게 된다(차크리바티, 2019), 즉 우리가 현재 봉착해 있는 지구적 생태위기는 어떤 임계점을 넘게 되면 되돌이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이후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파국적 위기이다.

인류세 개념에 함의된 이러한 파국 상황은 또한 동시에 어떤 새로운 사회생태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는 단순한 단절이나 간극 또는 분리가 아니라 한 시대

에서 다른 시대로 이행하는 전환을 의미한다. 즉 인류세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연구자들이 서술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구를 여태까지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급격하고 돌이킬 수 없도록 전환시키는 잠재력을 지닌 행성적 생명의 전환기에 살고 있다. 이로 인해 21세기 시대정신은 긴박감과 융합되어 있다”(Moore, 2016, 1).

현상 유지라기보다 파국과 전환으로서의 인류세와 이에 함의된 지구적 생태위기의 인식은 국내의 연구자들에게도 반영된다. 예로, 최명애, 박범순(2019, 22)에 의하면, “인류세에 대한 사회과학 논의들은 파국의 위기 의식 속에서 지구 시스템의 불확실성과 인간-지구 관계의 역동성을 적극 고려하는 새로운 지식 생산과 실천의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김홍중(2019, 12)은 “이제 인류는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간적 지평 위에 놓이게 되었고, 최종 파국을 피해가기 위한 집합적 생존 전략을 실천해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받게”되었다고 서술한다. 이러한 점에서 최병두(2021)는 파국에 처한 지구적 생태위기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세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녹색전환’을 개념화하고자 한다.

이처럼 인류세 개념은 현재 인류가 처해 있는 파국적 위기에 대한 성찰과 이를 해소해야 할 전환적 실천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개념이 제시된 이후 많은 연구자들의 논의와 대중들(대중 매체 포함)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폭되었음에도 불구하고(또는 그로 인해), 인류세 개념은 아직 제대로 그 의미가 채워지지 않은 언표로 남아 있다. 즉 김홍중(2019, 11)이 지적한 것처럼, “인류세라는 신조어는 이처럼 새로운 시간의 결정적 단절점을 표시하는 강력한 ‘언표’로 작용”하고 있지만, “1990년대 지구화라는 개념처럼, 인류세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경고음”이 되고 있다(Moore, 2016).

이처럼 인류세라는 용어는 많은 관심을 끌고 있지만, 아직 학계의 승인을 받지 않은 비공식적 용어일 뿐 아니라 확실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 무정형적 개념(amorphous notion)이다(Monastersky, 2015, 145) 상태이다. 달리 말해, 인류세라는 용어가 지구적 생태위기에 관한 기존의 다른 어떤 이론이나 개념들보다도 더 강력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Lorimer, 20212; Castree, 2014), 이 개념이 ‘무정형적’이고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는’ 논쟁적 개념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러한 의문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이 용어를 제안한 크뤼첸의 개념화에 내재된 모순적 논리(또는 부정 변증법적 논리)와 인류세 위기의 해소를 위해 제시된 현상유지적 방안을 살펴 볼 수 있다.

3. 인류세 개념의 등장과 모순적 함의

인류세 개념이 2000년 대기화학자로 노벨상을 수상한 폴 크루첸과 생물학자 오이겐 스텐머(에 의해 제시된 이후, 처음에는 지구과학 및 관련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의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그 이후 현재까지 20여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서 거의 모든 분야의 연구자들뿐 아니라 대중매체나 일반 시민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처럼 인류세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급속히 확산된 것은 인류세 개념에 내포된 함의가 그 만큼 심각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실제 그 동안 지구환경의 퇴락과 생태계의 파괴 그리고 이로 인한 인간의 사회경제적 충격, 나아가 문명사적 발전의 한계에 봉착할 것임을 우려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인류세라는 용어만큼 강력하지 않았다. 즉 인간의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은 이제 지구 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러한 ‘인류 유발적’(anthropogenic) 충격에 의한 지구환경과 생태계의 변화가 인간 사회에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기후위거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이 현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험적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인류세 개념이 이처럼 지대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개념이 정형화되지 않음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이 각기 다른 관점이나 이론적 틀 속에서 이에 관하여 자신의 해석이나 주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인류세라는 용어는 크루첸에 의해 처음 제시될 때부터 완전한 과학적 논거에 기반한 정형화된 개념이라기보다 제안자들의 개인적 입장에서 그 내용이 유연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다소 모호하게 서술되어 있었다.

특히 그가 지칭한 ‘인류세’에서 ‘인류’(anthropos)라는 용어는 자연과학적 개념이라기보다 인문사회분야의 논의에서 거론되는 개념이다. 사실 이 용어가 학문적(또한 대중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과정에서 과학적 사실의 실증분석에 기반한 자연과학에서 담론화에 따른 역사적 및 사회적 함의를 분석하고자 하는 사회과학 및 인문학으로 확산됨에 따라, 논의의 기본 방법론의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개념화(논의의 틀)에 상당한 굴절이 있었다. 즉 인류세에 관한 논의는 지질시대로서 인류세에 관한 과학적 연구보다 인류의 개념과 인류세 위기의 배경에 관한 인문사회적 연구가 더 중요하게 된 것이다.

지질학이나 지구과학을 포함한 자연과학 분야들에서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인류세라고 지칭될 수 있는 지질시대 구분에 관한 과학적 증거들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지질시대를 구분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면, 인류세의 역사적, 사회구조적 배경에 관한 사회,인문학 분야의 연구들은 인류세 그 자체에 관한 논의보다는 연구자가 설정한 철학적, 이론적 바탕에서 이를 재해석하는 데 주력했다. 이로 인해 인류세 개념은 점점 더 많은 내용을 가진 기표(signifier), 심지어 ‘모든 것을 의미하는’ 연표가 되었지만, 또한 동시에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면 될수록 점점 더 모호하고 모순적인 함의를 가지게 되었다.

인류세 개념이 내재하는 이러한 모호하고 모순적인 함의는 이에 관한 크루첸의 제안에서부터 시작된다.¹⁾ 인류세 개념에 관한 그의 제안 및 그 이후 논의들은 많은

1) 크루첸은 자신이 인류세 개념을 제안하기 이전에도 이와 관련된 여러 제안들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즉 그가 서술한 바와 같이,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력 증대는 1873년 이탈리아 지질학자 안토니오 스토포파니(Antonio Stoppani)가 “인류 대”(anthropozoic era)를 제안하면서 ‘힘과 보편성에 있어서 더 큰 지구의 힘과 비견될 정도로 새로운 지구적(telluric) 힘’에 관하여 언급했던 시기만큼이나 오래 전에 인식되었다. 그리고 1926년 베르나드스키(V.I.Vernadsky)는 [지구에 미치는] 인간의 충격 증대를 인식했다”(Crutzen, 2002).

연구자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2가지 기본입장, 즉 '인류의 지질학적 힘'과 '지구적 생태위기'를 전제로 한다.

크루첸의 서술에 의하면, "지난 3세기 동안 지구환경에 미친 인간의 영향은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인간유발적'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인해, 지구기후는 수백만년이 지나는 동안 자연의 행태[작동]로부터 상당히 분리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크루첸은 지난 1만-1만 2천년의 온난한 시기, 즉 홀로세에 추가하여, 수많은 방법으로 인간에 의해 지배된 현재의 지질학적 세(epoch)에 대해 '인류세'라는 용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고 서술한다(Crutzen, 2002). 특히 크루첸은 지구환경에 미치는 이러한 인간의 영향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인류는 '자연의 위대한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수 천 년 동안 어쩌면 아마 다가올 몇 백만년 동안 주요한 지질학적 힘으로 남게 될 것"임을 천명했다(Crutzen & Stoermer, 2000).

그러나 다른 한편 크루첸은 이러한 인류의 지질학적 힘에 의해 "수많은 방법으로 인간에 의해 지배된 현재의 [지구]"가 결코 긍정적 효과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매우 부정적 결과를 보이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인간이 지구환경에 미친 '수많은 방법'과 관련하여, 그는 세계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1인당 지구 자원의 착취의 급팽창, 메탄 생산의 주요 원인인 가축 수의 증가, 인간에 의한 토지 표면의 개척, 열대우림의 급속한 소멸, 이산화탄소의 배출, 생물종의 소멸, 댐 건설과 지표 담수의 이용량 증대, 대륙붕 및 심해에서 어류의 감소, 그리고 에너지 사용의 급증과 대기중 황산화물 배출, 또한 화석연료 연소와 농업에서 온실가스 배출 등을 언급했다. 이에 더하여, 크루첸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이때까지 이러한 효과들은 세계인구의 단지 25%에 의해 주로 유발되었다. 그 결과는 여러 다른 것들 가운데, 산성 강우, 광화학 스모그, 기후온난화 등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최근 추정에 따르면, 지구는 금세기 동안 1.4°C - 5.8°C 정도 따뜻해 질 것이다"(Crutzen, 2002).

크루첸이 제안한 이 두 가지 기본입장은 그 이후 논의에도 지속적으로 반영될 뿐 아니라 논쟁의 핵심 주제들이 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기본 입장을 요약하면, 오늘날 인류는 자연의 위대한 힘을 능가하는 지질학적 힘을 가지고 지구시스템에 충격을 주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구환경의 구성요소들은 급속히 퇴락하게 되었고 또한 인간 사회에 심대한 충격을 미치게 되었다. 즉 인류세 개념은 인류가 자연의 위대한 힘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자연을 지배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능력에 따른 '자연의 지배'는 지구와 인류 자신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지도록 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²⁾ 이러한 점에서 인류세

2) 그러나 크루첸은 지구적 생태위기로 인해 지구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고 인간 사회가 파멸할 것이라고 예측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지구적 대재앙이 없다면 - 운석 충돌, 세계전쟁 또는 유행병(pandemic) - 인간은 수 천 년 동안 주요한 환경적 힘으로 남을 것"(Crutzen, 2002)이라고 내다보

개념은 과거 지구 자원의 한계나 지구환경의 황폐화 그리고 이로 인해 인간 사회의 다양한 부정적 영향과 지속불가능성 등을 경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는 어떤 개념들보다 더 강력하고 긴급성을 일깨우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4. 인류세 개념의 의의와 한계

인류세 개념은 인류의 지질학적 힘을 강조하지만, 그 결과로 초래된 지구적 생태위기로 자신의 존립기반을 파괴하는 비극을 깨닫도록 한다. 인류세 개념은 인간과 자연 간 관계의 긍정적 상호관계에 따른 공진화가 아니라 부정적 변증법에 의한 상호 파멸로 치닫고 있음을 함의한다. 이러한 ‘인류세의 비극’ 또는 ‘부정 변증법’은 제안된 지 불과 20여년만에 인류세 개념이 직접 관련된 지질학이나 지구과학 그리고 생물학이나 여타 자연과학을 넘어서 사회과학 및 인문학 전반으로 확산되었고, 일반 대중들과 관련 매체들도 이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인류세 개념은 크루첸의 제안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과 논쟁들을 유발했다. 인류세 개념을 둘러싼 논란에서 가장 빈번하고 우선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인류’가 무엇을 의미하거나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판가들은 인류세가 마치 인류 일반에 의해 초래된 것처럼 인식하고, 오늘날 지구적 생태위기에 내재된 인간 집단 내의 불평등 문제를 무시한다고 주장한다(Malm and Hornborg, 2014). 달리 말해 인류세 개념은 인류를 단일 종으로 간주함으로써 지구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한 특정 집단과 그들의 책임성 또는 인류세 위기를 유발한 특정한 사회경제적 메커니즘을 모호하게 하는 ‘초인간적’ 담론이라고 비판된다(Swyngedouw and Ernstson, 2018 등 참조).

크루첸이 세계인구의 단지 25%가 오늘날 지구적 생태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인류세 개념은 지구상의 인간 전체가 인류세 위기를 유발한 직접적 행위자로 치부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미분화된 전체’ 또는 ‘추상화된 인류’라는 개념으로 인해, 인류세 개념은 인류 사회에서 권력의 차별과 경제적 불평등, 나아가 인간사회의 구조적 측면들, 예로 자본주의, 제국주의, 가부장제, 인종주의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무어, 2020, 274-5).

크루첸과 인류세 연구자들이 인류를 이처럼 단일 종 또는 미분화된 전체로 설정한 것은 지질학적 행위자로서 거시적 지질시대에 자리매김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³⁾ 그러나 크루첸의 제안에서 ‘인류’와 관련하여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오늘날 가지는 ‘지질학적 힘’의 근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 아무런 직접적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달리 말해, 인류세

면서, 인류세가 상당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3) 이러한 점은 이들의 공동연구에서, “세계의 상이한 사회들이 지구시스템에 다르게 그리고 불균등하게 압박을 가하는 데 기여했으며, 미래의 궤적을 변경하는데 다양한 능력들을 가질 것임을 인정하는 한편, 지구시스템의 미래 궤적을 분석하기 위해 시스템에 미치는 인간 충격의 총합이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된다(Steffen et al., 2018)

개념은 지구 환경을 지배하게 된 인간의 지질학적 힘을 강조하지만, 이와 관련된 사회적 역동성에 관해 거의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라고 하겠다(Palsson et al., 2013).

하지만 우리는 인류세의 기원에 관한 크루첸의 서술에서 이에 관한 간접적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즉 그는 인류세를 18세기 후반에 시작한 것으로 제시하면서, 이는 “극빙하에 갇힌 공기 분석에서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지구적 농축”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1784년 제임스 와트(James Watt)의 증기기관 설계”와 일치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인류세의 시작 시점으로 지구 온실가스의 누적과 동시에 증기기관의 설계와 작동을 동시에 지적한 것은 지구환경 또는 지구시스템의 변화라는 지구의 역사와 사회경제의 기술화, 산업화라는 인간의 역사가 상호 조응하거나 수렴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크루첸이 지적한 ‘증기기관’은 결국은 인간의 ‘지질학적 힘’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그의 인류세 개념은 암묵적으로 기술결정론적 사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류세에 관한 크루첸의 제안에서 또 다른 큰 문제는 당면한 지구적 생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점과 관련된다. 그의 서술에 의하면, “과학자들과 공학자들 앞에는 인류세 시대에 사회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관리로 향하도록 해야 할 막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 이는 모든 차원에서 적절한 인간 행동을 요청할 것이며, 국제적으로 채택된 대규모 지구공학 프로젝트, 예로 기후 ‘최적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포함할 것이다.”(Crutzen, 2002).

크루첸은 아마 자신이 인류세를 제안했을 당시 이 개념이 사회과학 및 인문학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가 과학자와 공학자의 역할을 우선 거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인류세 위기에 대한 주요 해법으로 기후 ‘최적화’ 등 지구공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 점은 분명 논란거리라고 할 수 있다. 크루첸의 이러한 기술공학적 해법 제안과 그 후 제시된 여러 연구자들의 인류세 대응 과제 설정⁴⁾은 인류세에 관한 비판적 연구자들로부터 인류세에 관한 이러한 논의(특히 자연과학적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에 대한 의심을 자아내는 주요 근거가 되었다.

- 인류세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더 공부하고자 한다면 아래 문헌을 참조하세요.
조철기, 209, 인류세의 지리교육적 함의 탐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7(2), 87-97.
최병두, 2021, 인류세와 코로나 팬데믹, 한울.
해밀턴, 클라이브 (정서진 역), 2018, 인류세: 거대한 전환 앞에 선 인간과 지구시스템, 이상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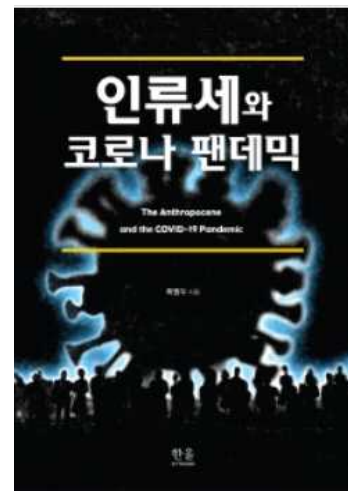
4) 예로, 스테펜(Steffen et al., 2011) 등은 과학기술의 적극적 대응과 더불어 인간 행위자들의 행태에 있어서 근본적 변화, 국제적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통한 지구의 ‘행성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참고문헌

김홍중, 2019, 인류세의 사회이론
I. 파국과 패이션시(patency), 과학기술학 연구, 19, 1-49.

무어, 제이슨, 2020,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 갈무리 (J.Moore,
2016, *Capitalism in the Web
of Life*, Verso, London).

차크라바티, 디페시(박현선,이문우
역), 2019, 기후변화의 정치학은
자본주의 정치학 그 이상이다,
문화과학, 97, 143-161.



최명애,박범순, 2019, 인류세 연구와 한국 환경사회학: 새로운 질문들, ECO 23(2), 7-41.

최병두, 2021, 인류세와 코로나 팬데믹, 한울.

해밀턴, 클라이브 (정서진 역), 2018, 인류세: 거대한 전환 앞에 선 인간과 지구시스템, 이상
북스 (Hamilton, C, 2017, *Defiant Earth: The Fate of Humans in the Anthropocene*,
Polity Press, Cambridge UK)

Asafu-Adjaye, J., Bomqvist, L., et al., 2015, An Ecomodernist Manifesto, Technical Report.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81607422_An_Ecomodernist_Manifesto.

Castree, 2014, The Anthropocene and geography 1: the back story, *Geography Compass*,
8(7), 436-449.

Crutzen, P. and Stoermer, E., 2000, The Anthropocene, *Global Change Newsletter*,
41.(May, 2000), 17-18.

Crutzen, P., 2002, Geology of mankind, *Nature*, 415, 23.

Lorimer, J., 2012, Multinatural geographies for the Anthropocen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6(5), 593-612.

Malm, A., and Hornborg, A., 2014, The geology of mankind? a critique of the
Anthropocene narrative, *The Anthropocene Reivew*, 1(1), 62-69.

Monastersky, R., 2015, Anthropocene: the human age, *Nature*, 519, 144-147 (한글 번역:
<https://www.ibric.org/myboard/read.php?id=257374&Board=news>)

Moore, J.W., 2016, Introduction, Moore, J.W.(ed), *Anthropocene or capitalocene? Nature,
History, and the Crisis of Capitalism*, PM Press, 1-11.

Steffen W., Grinevald, J., Crutzen, P., and McNeill, J., 2011, The Anthropocene: conceptu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369,
842-867.

Steffen, W. et al., 2018, Trajectories of the earth system in the Anthropocene, PNAS,
115,

Swyngedouw, E. and Ernstson, H., 2018, Interrupting the Anthro-po-obScene:
Immuno-biopolitics and depoliticizing more-than-human ontologies in the
anthropocene, *Theory, Culture and Society*, 35(6), 1-28.

편집 후기

19학번 최지수

우선 올 한 해도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온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쉬운 대학생활을 보내고 계실 텐데 이번 27호 지구마음이 여러분의 소소한 재미와 소통의 창구가 되길 바랍니다. 유난히 춥게 느껴지는 이번 겨울이 따뜻하길 바라며 마칩니다.

20학번 이유민

2022년에 입학할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정말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학생분들에게는 한 해를 돌아보며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구마음을 제작하는데 도움을 준 편집부원들, 동기들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지구마음을 제작하는데 고생한 편집부장 선배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20학번 진승우

지구마음을 제작하면서 신입생들이 어떤 내용을 즐거워할지를 많이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지구마음을 통해 신입생들에게 과의 이야기들을 전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보람차고 설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구마음을 통해서 과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매우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재밌게 읽어주세요 :)

21학번 권완우

지구마음을 제작하며 맛집탐방, 동기들의 소개글을 보면서 이러한 많은 지역, 많은 개성을 지닌 동기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으며 맛집탐방을 하는 멤버로 같이 맛집을 탐방을 하면서 대구대 앞이 아닌 근처, 또한 대구대 정문거리에도 맛집이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많은 바를 열심히 하면서 뿌듯함을 제작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21학번 김수진

1년동안 정신없이 흘러가면서도 27호 지구마을 제작에 함께 할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지구마을이 많은 추억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이 되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21학번 이태희

지구마을 제작에 참여하면서 선배들과 작업을 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의견도 경청해주시고 함께하여 재밌었던 시간 이었습니다. 지구마을 제작한 노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